

## “콤팩트에 이어 미러리스 카메라 국내 시장 1위에 도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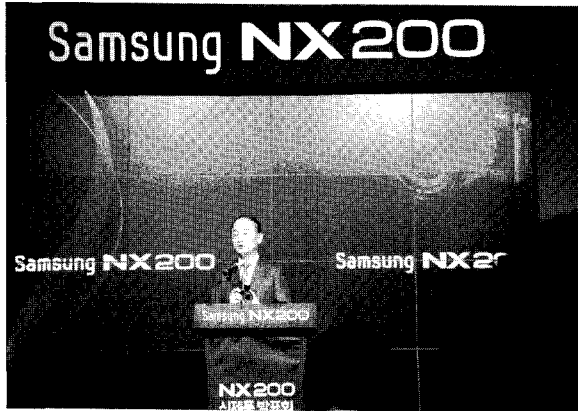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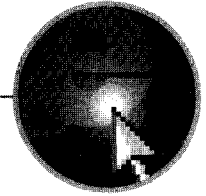
삼성전자(주), 미러리스 카메라 'NX200' 출시 기자간담회 개최

국내 콤팩트 카메라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전자(대표 최지성, [www.samsungimaging.co.kr](http://www.samsungimaging.co.kr))가 일본 제품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내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도 1등을 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고성능 미러리스 카메라 'NX200' 출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제품이 갖는 제품의 우수성을 알림과 함께 미러리스 카메라를 필두로한 향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취재 | 박지연 기자

삼성전자가 2000만 화소대의 고성능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NX200' 출시를 통해 일본 니콘·소니·올림푸스 등과 국내 시장에서 미러리스 카메라 경쟁에 적극 가세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9월초 독일 'IFA 2011' 전시회에서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은 이 제품은 2030만 화소의 고화질을 자랑한다. 현재 출시된 미러리스 제품 가운데 처음으로 2000만 화소 시대를 연 제품이 바로 'NX200'이다. 9월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미러리스 카메라 'NX200' 출시 간담회에서 한명섭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은 “올해 삼성전자는 적게는 17만대에서 최대 25만대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판매할 계획”이라며 “국내 콤팩트 디카 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미러리스 제품 역시 국내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국내 콤팩트 디카 시장에

서 44.1%의 점유율로 압도적 1위를 달라고 있다. 미러리스 역시 점유율 34%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지만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무는 또 “올해 글로벌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은 300만대지만 내년 550만대로 증가하고, 3년 뒤인 2014년에는 1300만대로 급속히 늘어 기존 DSLR 시장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며 “삼성전자는 성능과 디자인, 편의성을 갖춘 미러리스 제품으로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삼성에서 자신 있게 선보인 미러리스 카메라 'NX200'은 2030만 화소에 대형 APS-C 타입의 CMOS 이미지 센서를 채용해 DSLR과 동일한 수준의 풍부한 색상과 섬세한 고화질을 구현했다. 초당 7연사의 연속촬영이 가능하고 '콘트라스트 AF' 기능을 탑재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독자기술인 DRiME3 DSP 칩을 적용해 미



▶ 한명섭 삼성전자 디지털이미징사업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이미징사업부 렌즈개발팀 전무 및 한국시장 마케팅 담당 상무가 나서 제품에 대한 상세한 소개 및 마케팅 전략에 대해 밝혔다.



▶ 모델들이 신제품 'NX200'을 선보이고 있다.

미러리스 카메라 최고 수준의 해상력과 이미지 품질을 확보했다. 감도 역시 기존 'NX100' 최대 감도인 ISO 6400 보다 두배 향상된 ISO 12800을 지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고화질의 촬영이 가능하다.

높은 사양에도 불구하고 가로 11.6cm, 세로 6.2cm, 두께 3.6cm, 무게 220g의 휴대성을 갖춰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세계 최초의 기능 조절 렌즈인 'i-Function' 기능도 2.0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렌즈에 부착된 버튼과 포커스 링을 통해 다양한 장면모드가 가능하고 디지털 필터를 사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현식 삼성전자 한국총괄 마케팅 담당 상무는 “최근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의 트렌드는 기기의 소형화와 고성능화”라며 “삼성 카메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뛰어넘

는 차별화된 성능을 바탕으로 고화질·고속촬영·디자인 고급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은 이번 'NX200'과 함께 초광각 16mm 팬케익 렌즈, 60mm 매크로 렌즈와 18~200mm 슈퍼줌 렌즈, 85mm 인물 촬영용 렌즈를 추가로 출시해 렌즈 라인업도 보강했다. 강건모 디지털이미징사업부 렌즈 개발팀 전무는 “삼성전자는 지난해 4개의 렌즈 제품군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에 5개의 새로운 렌즈를 선보인다”며 “내년에 총 4~5개의 신제품을 출시하면 선발 업체와의 렌즈 경쟁에서도 대등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선보이는 렌즈 신제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제품은 ‘여친 렌즈’로 출시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85mm인물촬영용 렌즈다. 이 제품은 조리개값이 f1.4로 최고의 밝은 영상을 제공한다.

18~200mm 슈퍼줌 렌즈도 광각에서 망원까지 도합 11배의 줌 기능을 제공해 동영상 촬영에 적합하다.

한명섭 전무는 “NX200은 성능은 물론 디자인과 휴대성, 편의성에 이르기까지 경쟁사와 차별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라며 “삼성전자는 단순한 카메라가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의 느낌을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창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NX200' 출시를 통해 삼성전자의 광학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사용자를 DSLR 유저층까지도 흡수해 시장 점유율 향상과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